

연중 제27주일
(군인주일)

기도서 P. 441 B해

제1독서(창 세 2, 18-24)
제2독서(헤 브 2, 9-11)
복 음(마 르 10, 2-16)

순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불 희
주 산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②2935)

□제4차 순교자 현양대회□

순교(殉敎) 정신으로

복음화(福音化)를 이룩하자!

김 재 덕 주교

□ 왜 모였는가?

“당신들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오”(마태오 16, 15)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내리신 지상명령으로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을, 즉 복음선교의 대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순교자 현양대회에 다 함께 모인 것도 바로 우리의 기본대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본사명인 복음선교 자체에는 예나, 지금이나, 후일에도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대와 장소를 따라 달리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화의 방법이며, 일찍이 이 땅에서 살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우리 순교선열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놀라운 방법, 즉 순교정신을 이어 받아, 같은 겨레의 후손으로서 역시 복음화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다함께 모인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궁극 목적은 복음선교에 있지만, 그 복음화의 수단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피로 물려준 자랑스런 순교정신을 힘차게 발휘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찬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순교정신으로 튼튼히 재무장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대회를 갖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순교, 순교정신

주님은 일찍이 “당신들은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 끌려가 마칠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나 때문에 임금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루가 21, 12) 그러나 그것은 불행히 아니라 오히려 행복이라시면서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 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받을 큰 상이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일찍이 예언하셨고, 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신만큼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위대한 <순교정신>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교정신을 바로 알아듣기 위해서 먼저 <순교>라는 말의 뜻을 살펴봅시다.

서양말로써 순교라 함은 본시 martyr라 하여 「증거」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 어떤 사건에 대한 「결사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우리말에도 직책에 충실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을 순직이라 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순국이라 하니, 한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殉자는 死(뉘앙스할 알) + 旬(열흘 순)이니 “죽은 사람의 뒤를 이어 열흘안에 죽는다”는 뜻으로 「쫓을 순, 죽은 사람 따라 죽을 순」으로

말자 그 자체가 「함께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라는 말은 순직이나 순국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즉 종교의 진리가 참됨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결사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또한 치명(致命)이라고도 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진리를 증거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면 <순교정신>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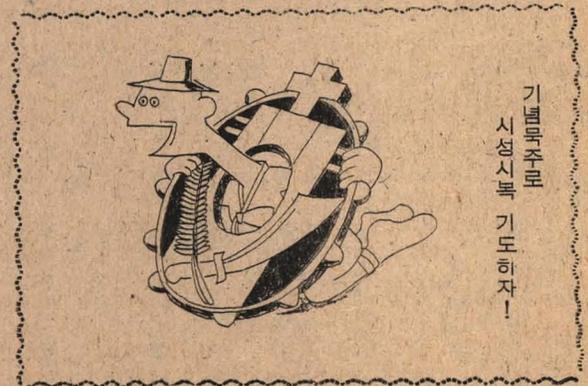
근본적인 의미의 순교정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정신을 뜻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부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실로 근본적이고 원형적인 의미의 순교정신의 원천은 그리스도 정신입니다. 즉, 모든 순교정신은 이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그리스찬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와 죽음을 함께 하는 <교회정신>과 그리스찬 개개인의 인간다운 즉, 그리스도와 죽음을 함께 하는 <크리스찬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 정신>이며, 여기에서 유래되는 것이 <순교정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정신이란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 정신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원천으로 하여 「크리스찬 공동체로서의 교회정신」과 「크리스찬 개개인으로서의 크리스찬 정신」을 함께 포함해서 순교정신이라 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순교정신은 <순교>라는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교회와 직접 관련을 지어 죽음을 함께 한다」는, 즉 「교회와 또한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를 위해」
(2면에 계속)

순정이 산책



기념록주목
시성시복
기도하자!

(2) 순 정 이

<1면에서 계속>

목숨을 바치는 정신"을 일컬어 순교정신이라 합니다.

□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문제는, 교회와 함께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순교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치열한 마음」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없이 순교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이 더구나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사랑이 없는 순교정신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그리스도의 정신 역시 그리스도의 성부께 대한 사랑과 인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교회의 정신 역시 교회의 그리스도께 대한 지극한 사랑이, 크리스찬 정신 역시 신자들의 그리스도께 대한 지극한 사랑이 그 동기가 되고 바탕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자기 직장에 대한 애착도 없는 상태에서 그 직장을 도피하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이는 직장에 대한 배신일망정 순직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애국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전장에서 도망하려다가 적병에게 죽었다면 이 역시 순국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순교는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배교(背敎)의 위험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에 본 여러가지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1)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관심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영육간의 건강에 관심이 없을 때, 자신의 과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가정의 생계나 교육, 신앙문제에 관심이 없을 때, 가정에 파탄이 일게 됩니다. 또한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면에 있어 잘되던 말던 관심이 없을 때에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민주국가에 있어서 정권의 부패나 자유의 속박, 인권유린 등에 대해 무관심함은 애국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와같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대로 「교회밖의 사회나 사회밖의 교회」가 아닌 「교회안의 사회와 사회안의 교회」라는 개념으로 받아드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교회와 <운명을 함께>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교회와 희생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나를 별개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오늘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신비체인 동시에 하느님의 백성인 나 자신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3) 특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넓은 의미의 박해>에 있을 때, 우리는 앞장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며, 그 해결에 적극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교회와 함께, 특히 어려움에 있을 때(迫害) 그 고통을 함께 할 뿐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함에 앞장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사랑과 평화의 나라인 그리스도왕국의 신민(臣民)으로서 이 땅에 만연되고 있는 온갖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해치는 어떠한 일도 배격하며, 미움과 증오와 폭력을 물리치는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운명을 함께 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필요하다면 교회와 죽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순교정신입니다.

□ 오늘날의 박해

여기서 잠깐 넓은 의미의 박해(소위 現代式 迫害)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의 박해는 결코 어떤 진리 신조(信條)의 거부를 강요하거나, 총칼로 피와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혈(有血)의 모습보다는 무혈(無血)의 그것으로, 어떤 물질(物的)이고 외형적인 방법보다는 내적이며 정신적인 방법으로 자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박해는 <하느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왕국의 결정적인 가치들인 진리와 정의, 생명과 존엄성,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거스려 그리스도교 정신을 밑바닥부터 송두리채 뒤흔들려는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그리하여 진리와 정의 대신 거짓과 불의를 조작하면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대신 인간의 자유와 인권과 생명까지를 유린하면서, 사랑과 평화대신 미움과 증오와 폭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백성들, 특히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가장 악랄하고 교활한 지능적인 형태의 박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박해는 공산세계와 독재 사회에서 예사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실로 무서운 죄악들이며,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스스로 패망과 친필을 자초하는 지저러운 것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은, 이런 형태의 현대식 박해들은 한결같이 겉으로는 양의 가족을 쓰고 오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시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일수록 겉으로는 버젓이 언론,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 등을 내걸고 있지만 실은 완전히 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빛같은 그럴듯하게 민주나 자유의 탄을 쓰고 있지만, 실은 그 속에 독재의 날카로운 발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련의 서슬 모스크바에 있는 대성당은 신앙의 자유를 위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 경계해야 할 배신행위

또 한가지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은, 슬프게도 가끔 우리 교회안에서마저 빛어지는 무서운 <배신행위>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교회안에도 역시 배신자가 「말발굽의 가라지」처럼 나타나기 마련인가 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다스가 그렇고, 중세의 많은 이단자나 배교자들도 그렇고 한국교회 초창기의 김여삼이 바로 그러합니다.

요즘같은 험한 세태에서는 권력에 아부하며 스스로를 배신하는 비겁한 무리들이 우리 교회의 일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라면 사랑을 철저히 배반하는 불쌍한 배교자들입니다. 과연 이런 때 “월수나 도적은 먼저 잠안에 있다”는 말이 더욱 실감이 갑니다. 교회가 한편에서 어려운 고통중에 있을 때, 뜻을 같이하여 위로는 못해줄망정, 그 화근에 한뼘끼여 더욱 부채질하는 행위는 형제애를 근본적으로 거스리는 지저러운 배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해자들은 흔히 이런 배신자들을 통해서 더욱 힘과 용기를 얻고, 그들과 더불어 박해에 박차를 가해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불쌍하게도 월수의 앞잡이로서 이용당할대로 당한 연후에 드디어는 자신의 과열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6·25끝에 후퇴하던 인민군들이 부역자들, 특히 교회를 배신한 앞잡이 신자들을 오히려 모조리 죽이고 도망갔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 하루를 살아도 몇몇하게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앞에 몇몇하게 살아갑시다! 일시의 안일을 위해서 권력이나 금력앞에 무릎을 꿇고,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면서 삽입하면 교회를 배신하면서까지 비열하게 처세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까.

불쌍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특히 부당한 매우로 인간취급을 못받는 노동자나 농민들을 보고도, 짓밟히며 피가 식어가는 젊은이들을 보고도 무관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몸바쳐 악과 용감히 싸우는 사람만이 진정 순교정신에 사는 사람입니다.

망해가는 국가 사회를 구하기 위하여, 시들어가는 민족의 사기를 되찾기 위하여, 마비되어가는 백성의 양심을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함께 함께 삽자리를 지고 갈라리아까지 올라가야만 함으로 순교정신을 사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오늘의 애국의 길이며, 순교신자들의 영예로운 후손으로서 순교정신을 바로 사는 자랑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마태오 5, 11-12)

□군인주일□

목주의 기도 10,000단을...

정 승 현 신부



군인주일을 맞이해서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라고저 펜을 들었습니다. 주안에 안녕들 하신지요? 자연과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는 일용한 양식을 풍부히 주시고 우리와 함께 어려움 당하시며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이곳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 옥수수 수확은 거의 다 끝나고 산골에 간간히 보이는 눈에 황금물결이 가득합니다. 고운 산에는 단풍과 함께 머무 다래가 익어잡니다. 물소리 새소리가 귀를 맑게 해주고 고요한 산의 정기가 마음을 씻어줍니다.

임편이 되어 이곳에 올때 교구에서 사주신 오토바이도 아직은 험한 고갯길을 불평없이 잘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철책선 근무를 맡고 있는 저희 부대는 소부대들로 나뉘어져 여러곳에 산재해 있어서 오토바이는 제 분신(分身)처럼 소중하답니다. 성당도 없고 사제관도 없고 신부 사무실은 없어도 교회 뒷칸의 군종사무실 옆에는 성모님이 서 계셔서 위로와 격려의 미소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성모상 주위의 들과 나무 숲속은 다람쥐들의 천국입니다. 가끔 보아달라고 뒷발로 서서 재롱을 부리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사무실이 제 근무처가 아니고 야전부대들이 제 사무활동처입니다. 오늘도 부대들을 찾아 나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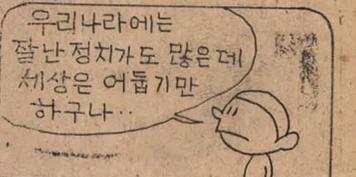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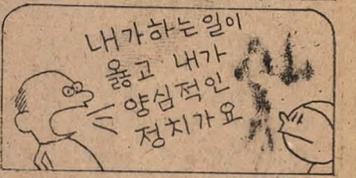
미사는 주일에 세 연대에서 한대씩 봉헌함이다만 기회가 닿는대로 어디서나 언제나 봉헌됩니다. 인격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종교상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건을 조성해보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는 않지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라도 성당이 있으면 군인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겠고 쫓차라도 있으면 험준한 산길과 산봉우리도 마다 않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로사리오 성월을 맞이해서 부대의 가톨릭 신앙을 제진하기 위해 로사리오 10,000단 바치가 운동을 시작합니다. 병사들에게 가락지 목주라도 한개씩 나누어 주고 싶고요. 지금은 신자 장병들이 군인기도서, 군인교리서, 그리고 공동번역 신약성서, 성가집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1년이면 수십명의 영세자들이 나옵니다. 어느 분당이 젊은 남자 청년신자를 그렇게 많이 영세습니까? 군대는 가장 좋은 사목의 터전이지요.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우심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삼가 부탁드립니다. 어여뻐 보아주시지요. 오늘도 여러분의 아들들, 형과 오빠들의 신앙을 돌보며 몸은 비록 파김치처럼 피로해도 마음은 밝고 기쁩니다. 주님의 은총안에 안녕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1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승리교회」

※ 목주 보내기 독지가를 구합니다 (4면 참조)

요심이 (323) 김병오



□여성 여러분에게
덧을 선사합니다□

송 옥 의 상 실

최 춘 자 (로사리아)

(이 시계점 옆)

전화 ③ 6 2 1 9

교우님들의 건강관리 상담
세 종 당 한 약 방

김 남 수 (벨라도)

전주시 풍남동 3가 35의9

(은행나무 사거리)

전화 ② 2 2 7 7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 (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MCGREGOR



맥그리거

삼실물산전주매리점
※성인·아동용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전화 ③ 4 4 5 1 번

유 클리야나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 보 당 금 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 창 수 (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② 8 1 8 8 (자 ③0369)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식, 보로

문 화 양 행

오 중 원 (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 피업차로 신속배달, 가정방문으
로 고향, 교우님들 자주 찾아주세요

신진프로판가스상사

대표 최 안드레아

전주시 진북동 천변도로

전화 ③ 5 4 4 8 · ③ 1 0 7 1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제 4 차 순교자 현양대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 참가자...약 1만명 ※ 봉헌금...104만 523원
2. 오늘은 군인주일...군중신부님과 군대에 가있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냅니다
3. 로사리오 성월(10월)을 맞아 군인들에게 가락지 목주를 선물합니다
로사리오 1만단 바치기 운동을 시작하는 병사들에게 가락지 목주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정승현 군중신부님의 하소연(3년 참조)에 귀를 막으시겠습니까?
뜻이 있으신 분은 성금을 순정이 편집실로 보내 주십시오. 성금에 맞게 현양대회 기념목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31개본당 참가, 총응시자-742명, 단체 종합우승-화산본당
4. 중고등학생 교리경시대회 결과(10월 28일<일> 오후 2시, 사목국에서 장학금 전달)
(중) 1위 화산 김구영, 2위 순정이 김기영, 전등 오인숙, 4위 합열 권석류, 5위 노송동 이옥
(고) 1위 합열 김영근, 2위 화산 김하영, 3위 순정이 정 석, 4위 임실 황소영, 5위 중앙 조완덕
5. 제 6 지구 1차 본당 친목대회 성황리에 마칠
성적: 1위-장수, 2위-한들, 3위-금산, 장려상-진안, 무주, 장계, 기쁜 하루였습니다
■ 송남호 신부님 2주기...10일<수>
□ 정의 평화를 위한 성금, 계속 접수합니다, 성심여고 김 바오로 1만원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 울 복
3874 보좌 신부 사 알 수 태 현
사도 회 장 이 북

1. 프란치스코 3회: 7일(일) 오후 1시30분
 2. 성령세미나: 8일(월)-13일(토)
시간: 저녁 8시-10시, 장소: 장당
 3. 어머니합창단: 11일(목) 오전 10시
 4. 성심부녀회: 12일(금) 어머니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67,215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사도 회 장 김 공 율

1. 애령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노인 미사시간 안내: 6일부터, 매주(토) 오후 3시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어린이 미사시간 변경: 7일부터 매주(일) 오전 9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제 1회 신앙강좌: 10월 21일부터 본당에서 실시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21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62,365원

(덕진)

전화 ⑤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중 복
사도 회 장 유 제 상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전성권씨 데
 3. 축영세-21명·건진-88명: 축하드립니다
 4. 영세 건진 사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0,945원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 종택
보좌 신부 박 성로
사도 회 장 조 성로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전성권씨 데
 3. 축영세-21명·건진-88명: 축하드립니다
 4. 영세 건진 사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0,945원

(서화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택
사도 회 장 황 인 구

1. 10월 로사리오 성월
① 특별기도(기도서 P 25)
② 미사후 목주기도 1단씩
2. 축! 첫 영성체: 46명 어린이
 3. 사도회 월례회: 10시미사 후
 4. 건진성사 준비 안내
① 신청-10월 14일까지
② 특별교리-14일~20일 매일밤 8시
③ 견진-21일 10시
 5. 본당 유지비 9월말 결산보고
총수입 6,314,800원 총지출 6,213,065원
잔 고 101,735원
- 지난주 봉헌금: 58,245원

(순정이)

전화 ⑤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 장 이 강 노

1. 사도회 월례회: 10월 7일
2. 군인주일 헌금 모금합니다
3. 성모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주일학교 후원회 연기: 16일 오후 2시 정각
5. 주일학교 체육대회에 협조해 주신 사도회·주일학교
후원회 자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신축기금 내주신분: 서진동-이정민(10만원),
진북2동-조봉순(1만원), 금암동-신영순(72만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엽
보좌 신부 김 기수
사도 회 장 유 석중

1. 오늘은 군인주일입니다(특별헌금 있음)
2. 사도회: 공식미사 후
4. 유아세례: 오전 8시30분 미사후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채 수 현

1. 사도회: 금일 공식미사 후
2. 성지순례: 10월 9일
미리네 및 절두산 당일 점심 각자 준비하세요